

## 지금과 연결된 지나간 은혜

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. 서북미에서 사는 나에게 봄은 꽃과 나무들의 변화가 기쁨을 주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해(Sun)이 길어졌다는 것이다. 겨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어두워져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해가 긴 것이 더 좋다. 그런데 올해는 더 빨리 긴 해를 경험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. 그래서 그런지 무언가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과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. 어제는 어찌나 날씨가 좋던지 구름이 한결 더 아름다워 보였다.

그런데 실은 이러한 봄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 있지 않았는가? 그렇다 3년 전에도 또한 10년 전에도 같은 봄이 찾아오곤 했다. 그런데 매 해 맞이하는 봄은 늘 나에게 새롭게 만하다. 왜 일까? 그 이유는 내가 잊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다.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감격이 있었지만 그 감격을 잊고 올해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이 감격하고 있는 것이다. 어쩌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. 그래서 매해 아름다움을 더 많이 만끽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하지만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늘 있었던 아름다움을 너무나 많이 잊고 마치 없었던 것 같이 여기는 일이다. 만일 그렇다면 새로움의 기쁨보다는 늘 나에게 있었던 행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게 되지 않을까?

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만 은혜를 주시 것이 아니다. 그런데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일에 임하실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게 되는 것으로 만 여기고 기도한다.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에도 또한 그 전년도에도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늘 임하시지 않았는가?

정말 그렇다.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풍성히 주셨다.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. 필요하고 늘 더 남을 만큼 주셨다.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 같이 여기면서 지나간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.

사도바울은 “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” (고린도전서 15장 10절)고 말한다.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가 보니 그 은혜로 지금에 내가 되었다는 고백이다.

우리도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지나온 과거 알게 모르게 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. 그 때에 변함이 없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산과 같으시고 큰 바위와 같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고 또한 움직이실 것을 깨닫고 하루 생겨난 감격이 아니라 한 가지 제목이 더 늘어난 감사로 연결되는 것이다. 하나님은 올 해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 주시며 사랑하신다.

올해는 그 봄이 새롭다.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.